

광주·전남 ‘별’들, 아이치·나고야 ‘별’로 우뚝 서라



양궁 오예진 ‘다관왕’·조정 김지선 ‘스타 탄생’·육상 이재성 ‘금빛 질주’ 예약 근대5종 서창완·육상 세단뛰기 김장우·우슈 산타 김민수 ‘메달 후보 1순위’

‘아시아 스포츠 대축제’인 2026 아이치·나고야아시안게임이 오는 19일 일본 나고야 파로마 미즈호스타디움에서 열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10월4일까지 나고야를 비롯한 일본 아이치현 일대에서 열전에 돌입한다. 태권도 선수들은 41개 종목 1천51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금메달 45개 이상 획득과 종합 순위 3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셔틀콕 퀸’ 안세영, 양궁 오예진, 근대5종 서창완 등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대표하는 스타들도 금빛 도전에 나선다. 빛나는 활약으로 ‘나고야의 별’로 우뚝 설 지역 스타들을 미리 만나본다.

〈편집자 주〉



이번 대회에 광주에서는 양궁 등 14개 종목 25명(지도자 4명, 선수 21명)이 태극마크를 달고 출전한다.

역도 박후성(조선대), 레슬링 박삼열(남구정), 하키 김종이(조선대), 육상 김국영(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이 지도자로 참가한다.

지난 7월 마드리드에서 열린 월드컵 4차 대회에서 단체전 금메달, 개인전 동메달을 획득, 세계 정상급 기량을 입증한 오예진(광주은행 테니스 양궁단)은 아시안게임 여자 단체전 8회 연속 금메달과 다관왕에 도전하며 배드민턴 조순형(광주은행)은 정나은(인천국제공항)과 함께 혼합복식에서 메달사냥에 나선다.

사격에서는 전남여고 출신으로 한국 클레이

사격 사상 첫 메달을 획득한 이보나(대한항공)를 비롯해 25m 속사권총 윤서영(국군체육부대), 25m 권총 봉서린(광주시체육회)이 메달을 정조준한다.

김지옥(광주시체육회)은 수영 다이빙 3m 스프링싱크로와 1m 스프링에서 메달에 도전하며 김다미(광주시체육회)는 스쿼시에서 출전한다.

유도에서는 올해 회장기 전국유도대회에서 -70kg급 금메달을 획득한 김혜미와 -78kg급 동메달을 차지한 김민주(광주교통공사)가 아시안게임 무대를 준비한다.

역도에서는 2025년 세계역도선수권대회 용상 3위,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 인상 3위·용상 1위·합체 3위를 기록한 손현호, 지난해 동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 은메달리스트 안시성(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이, 육상에서는 항저우아시안게

임 육상 남자 4×100m 계주 동메달리스트 이재성(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이 200m와 400m 계주에 출전한다.

조정 김지선(목성그룹)의 활약은 관전 포인트다. 광주체고 재학중이던 지난해 7월 실업팀 선수들을 제치고 국가대표로 선발됐고, 같은 해 10월에는 광주 최초 여자 조정 실업팀인 목성그룹 조정선수단에 합류한 김지선은 지난 6월 불가리아 플로브디프에서 열린 ‘2026 세계조정연맹 조정월드컵 2차 대회’ 여자 경량급 싱글스킬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메달 기대감을 높였다.

전남은 13개 종목 36명이 ‘금빛 도전’에 나선다. 전남 소속 선수는 30명(선수 29명, 심판 1명), 타지역 팀에서 활약 중인 전남 출신 선수단은 7명(선수 5명, 지도자 2명)이다.

박근철 전남체육회 감독이 심판으로, 정성안 대한요트협회 총감독과 김대영 대한요트협회 코치가 지도자로 나서며 선수로는 근대 5종 서창완, 김영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가 선봉에 선다. 올해 2026 UIPM 근대5종 월드컵 2차 대회

사진은 AI로 생성된 이미지

개인전 금메달을 획득하며 기세를 끌어 올린 서창완은 지난 16일 열린 남자부 펜싱 시드라운드에서 전체 1위에 오르며 금메달 기대감을 키웠다. 첫 아시안게임 메달에 도전하는 김영하는 11위에 자리했다.

육상에서는 항저우아시안게임 남자 세단뛰기 7위를 기록했던 김장우(장흥군청)를 비롯해 생애 첫 아시안게임을 준비하는 이아영(광양시청)이 여자 400m와 혼성 4×400m 계주 종목 메달을 노린다.

이밖에 수영 수구 한효민(전남수영연맹), 승마 장애물 정철희·권만준(이상 전남승마협회), 요트 470급 혼성 김창주·이경진(이상 여주시청), 우슈 산타 김민수(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럭비에서는 김남욱·장정민·김진혁·장용홍·박우빈·최성덕·김의태(이상 한국전력공사)가 나선다. 하키 서다해·이서후·김정주·이주연(이상 목포시청), 레슬링에서는 50kg급 천미라(삼성생명보험), 57kg급 권영진이 메달 사냥에 나선다.

/박희중 기자

‘골든 데이’는 금맥 터지는 10월2-3일

양궁·태권도 효자 종목 무더기 금 예고…셔틀콕은 29일 금 3개 도전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선수단의 골든 데이는 대회 폐회 직전인 10월2-3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종목별 메달 목표 등을 정리한 결과 우리나라

는 전통 메달박스인 양궁과 태권도 경기가 열리는 10월2일과 3일에 금메달 최대 11개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선수단은 20일 근대5종 여자 개인전에 출전하는 성승민(한국체대)에게 1호 금메달을 기대한다.

성승민은 2024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한국 여자 선수 최초로 개인전 정상에 올랐고 약 한 달 뒤에 열린 2024 파리 올림픽에서는 동메달을 획득해 아시아 여자 근대5종 선수로는 최초로 시상대에 섰다.

나고야 일원이 아닌 도쿄에서 열리는 수영이 금맥을 이어간다.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한술밥을 먹은 김우민과 황선우는 21일 남자 계영 800m, 23일 남자 자유형 200m에서 금메달에 도전한다.

아시아 최고 객을 자부하는 남녀 펜싱 대표팀도 22일 송세라(부산시청)가 출전하는 에페 여자 개인전을 시작으로 23일 파리 올림픽 2관왕 오상욱(대전시청)의 사브르 남자 개인전, 25일 에페 여자 단체전, 26일 사브르 남자 단체전으로

기세를 이어간다.

한가윗날인 25일에는 사격 공기권총 혼성 단체전, 수영 남자 배영 200m 이후조(서귀포시청), 수영 남자 자유형 400m의 김우민과 이호준(제주시청)도 금빛을 향해 방아쇠를 당기고 물살을 가른다.

27일에는 단체 구기 종목이 배턴을 받는다. 핸드볼 여자 대표팀이 일본과의 풀리그 최종전에서 시상대 가운데를 노리며, 한국 야구대표팀은 대회 5회 연속 우승을 기대한다.

셔틀콕 간판 안세영과 서승재·김원호(이상 삼성생명), 이소희·백하나(이상 인천국제공항)는 29일에 각각 배드민턴 여자 단식, 남녀 복식에서 하루에 금메달 3개를 목표로 뚫는다.

10월2일에는 양궁 여자 리커브 단체전과 혼성 단체전, 남자 단체전이 잇달아 벌어지며 유도 여자 78kg이하급의 이현지(용인대)와 e스포츠 리그 오브 레전드 출전팀이 금물결의 시동을 건다.

다음날에는 남자 골프 최종 라운드, 양궁 남자 리커브 개인전, 태권도 간판 남녀 간판 강상현(남자 80kg초급)과 김유진(여자 57kg급·이상 울산시체육회), 스포츠클라이밍 여자 리드의 서채원(서울시청), 그리고 4회 연속 우승에 출사표를 올린 남자 축구대표팀이 금빛 행렬의 대미를 장식한다.

/연합뉴스

역대 아시안게임 한국 성적									
회차	개최 연도	개최 국가	개최 도시	금	은	동	합계	순위	
1	1951	인도	뉴델리	8	6	5	19	3	한국전쟁으로 불참
2	1954	필리핀	마닐라	8	7	12	27	3	
3	1958	일본	도쿄	4	9	10	23	6	
4	1962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12	18	21	51	2	
5	1966	태국	방콕	18	13	23	54	2	
6	1970	태국	방콕	16	26	15	57	4	
7	1974	이란	테헤란	18	20	31	69	3	
8	1978	태국	방콕	28	28	37	93	3	
9	1982	인도	뉴델리	93	55	76	224	2	
10	1986	한국	서울	54	54	73	181	2	
11	1990	중국	베이징	63	56	64	183	3	
12	1994	일본	히로시마	65	46	53	164	2	
13	1998	태국	방콕	96	50	84	230	2	
14	2002	한국	부산	49	58	70	177	3	
15	2006	카타르	도하	76	65	91	232	2	
16	2010	중국	광저우	79	70	79	228	3	
17	2014	한국	인천	49	58	70	177	3	
18	2018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팔렘방	42	59	89	190	3	
19	2023*	중국	항저우						
20	2026	일본	아이치·나고야						

*당초 2022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1년 연기

자료: 대한체육회,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양궁, 하키, 스쿼시, 서핑, 요트, 테니스, 철인3종

‘출전권·쿼터’…LA 올림픽 전초전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2028 로스앤젤레스(LA) 올림픽 출전권이 걸린 종목은 7개다.

양궁, 하키, 스쿼시, 서핑, 요트, 테니스, 철인3종(트라이애슬론) 선수들은 LA 올림픽을 향해 나고야에서 먼저 승부를 건다.

출전권은 선수에게 직접 돌아갈 수 있으며 때로는 선수가 속한 국가올림픽위원회(NOC)에 귀속되기도 한다.

우선 이번 아시안게임 남녀 하키 우승팀은 12

개 나라가 출전하는 LA 올림픽 본선으로 직행한다.

양궁은 8장의 LA 올림픽 출전권을 내건다.

남녀 리커브 개인전 1, 2위(4장), 리커브 혼성 단체 우승 국가(남녀 1장씩 2장), 컴파운드 혼성 단체 우승 국가(남녀 1장씩 2장)에 출전 쿼터를 분배한다.

LA 올림픽 양궁은 리커브 남녀 개인·단체·혼성 단체전과 컴파운드 혼성단체전을 합쳐 6개 종목으로 치러지며 남녀 64명씩 128명이 출

/연합뉴스

2026 아이치·나고야아시안게임 한국선수 주요 경기 일정						
9월 16일 현재 예정·전종 경기 기준						
14 월	15 화	16 수	17 목	18 금	19 토	20 일
여자 축구 조별리그 vs 미얀마 오전 7:30 5:0 완파	남자 축구 조별리그 vs 카타르 오전 7:30 4:1 승리	근대5종 남자 펜싱 시드라운드 오전 2:30	여자 축구 조별리그 vs 방글라데시 오전 6:00	근대5종 남자 준결승 오전 10:00	개막식	근대5종 남자 개인 단체 결승 오전 2:30 배드민턴 남자 단체 16강 오전 9:30 공기소총 여자 예선-결승 오전 9:45
21 월	22 화	23 수	24 목	25 금	26 토	27 일
수영 남자 계영 예선-결선 오전 11:01	사격 공기소총 혼성 단체 예선-결승 오전 9:45	수영 남자 자유형 200m 예선-결선 오전 10:33	육상 남자 세단뛰기 예선 오전 10:30	배드민턴 남자 단식 64강 32강 오전 9:30	스케이트보드 남자 스트리트 예선 오전 2:55	사격 여자 권총 예선 오전 9:40
남자 야구 예선 vs 대만 오전 6:30	남자 수영 혼계영 예선-결선 오전 11:47	남자 야구 예선 vs 태국 오전 12:00	육상 남자 높이뛰기 예선 오전 7:05	배드민턴 여자 단식 64강 32강 오전 9:30	남자 야구 슈퍼라운드 오전 6:30	남자 야구 결승 오전 6:30
여자 축구 조별리그 vs 북한 오전 4:00	남자 야구 예선 vs 홍콩 오전 6:30	남자 복식 1회전 오전 11:25	탁구 여자 단식 1회전 오전 12:05	남자 야구 슈퍼라운드 결선 오전 8:35	남자 세단뛰기 결선 오전 8:15	육상 남자 높이뛰기 결선 오전 8:15
탁구 여자 복식 1회전 오전 6:30	기계체조 여자 정	남자 축구 조별리그 vs 사우디 오전 7:00	탁구 혼합복식 1회전 오전 3:10	여자 축구 8강	배드민턴 안세영	스케이트보드 강준이
28 월	29 화	30 수	1 목	2 금	3 토	4 일
사격 여자 권총 예선 오전 9:40	e스포츠 리그 오브 레전드 예선 오전 9:00	e스포츠 리그 오브 레전드 예선 오전 9:00	유도 여자 예선-결승 오전 11:00	유도 남자 예선-결승 오전 11:00	남자 축구 결승 오전 7:30	패럴림픽 이성현 e스포츠
사격 양지인	양궁 리커브 남자 개인 오전 8:15	양궁 리커브 여자 개인 오전 12:30	양궁 리커브 오전 12:30	태권도 겨루기 남-여 예선-결승 오전 1:30	e스포츠 리그 오브 레전드 결선 오전 12:00	이우석 김제덕 김우진 양궁: 리커브

강채영 이윤지 오예진

이우석 김제덕 김우진

양궁: 리커브

자료: 2026 아이치·나고야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